

남성의학 전문의 소영석의
술적·대담한 性

정관수술, 성욕 감소와 무관하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겨울방학이 되면 원하던, 원치않던 많은 남성들이 수술대 위로 올라간다. 남성들의 통과의례처럼 시행되는 포경·정관수술은 꼭 해야하나? 어떠한 장, 단점이 있는가? 두 수술은 주체가 남성이지만 수술 결정에 여성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대표적인 수술이다. 주부 박모씨(38)는 이번 방학 때 초등학교 5학년 아들(12)의 포경수술을 시킬 생각이나 찬반 양론이 있어 비뇨기과에 문의하였다. 포경이란 귀두를 포피가 둘러싸서 분리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만16-17세면 대부분 귀두와 포피가 분리된다. 이후로도 귀두 겹질이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면 병적인 포경상태로 보아 수술을 해야만 한다. 기원전 2000~3000년 이전부터 시행된 포경수술은 통증을 느끼지 못해 전신마취가 필요없

는 신생아 때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졌으나, 신생아도 격심한 통증을 느끼는 행동에 변화가 오는 것으로 보고된 후 신생아 포경수술은 크게 줄었다. 미국 소아학회에서는 이에 대해 의학적 으로 잠재적 이득이 있으나 모두에게 시행하기에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보호자에게 장단점을 설명한 후 미취 하에서 시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대체로 초등학교 4~5학년이 넘으면 국소마취로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으나 이보다 어린 나이는 협조가 안돼 전신마취를 하기도 한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술률은 높은 편이며 외 결상태 유지, 감돈포경, 귀두포피염, 소아요로감염, 성병, 자궁 경부암, 에이즈 발생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타임지는 지난해 10대 의학혁신 중 하나로 포경수술이

에이즈를 예방한다는 사실을 꼽기도 했다. 단점 보다는 합병증으로 통증, 출혈 및 감염, 귀두 점막의 손상, 과도한 표피 절제로 인한 귀두 표피의 기능 및 정상적 구조물의 손상 등을 들 수 있다. 포경수술은 장·단점이 있고, 시기가 정해져 있는 수술이 아니므로 부모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수술하는 게 좋다. 30대 후반의 최씨는 부인이 원치 않던 아이를 임신해 고생한 뒤 피임수술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두렵기도 하고 수술 후 정력이 약해진다는 속설이 있어 주저하다가 병원을 찾았다. 영구적인 피임법으로는 정관절제술과 난관 결찰술이 있으며, 정관절제술은 여성의 피임법에 비해 경제적이며 합병증이 적고 시술이 간편하여 선호된다. 서구에서 1899년 처음 시행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꾸준히 시행됐다.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시행되는 진공경을 보이다 정부의 출산장려도 정책으로 2004년 말부터는 보철혜택이 없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정관수술 광풍이 부는 추세가 벌어지기도 했다. 어찌됐든 정부정책과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 된 피임수술법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관수술 후 정력 감퇴, 성욕 감소, 발기력 저하, 전립선염이 발생한다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관수술은 정자의 통로인 정관만을 차단하므로 호르몬 분비와 관계가 없고 정관과 음경의 생리가 달라 성기능과도 상관 없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이런 잘못된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 수술을 강요당하거나 건강 염려증이 있는 남성은 정관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관수술은 임신에 신경 쓸 필요없이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위해서도 고려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수술의 주체인 남성이 포경·정관수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술 여부를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범비뇨기과 원장)

리빙 센스

스티커 떼어내기

떼어내기 힘들고 끈적끈적 흔적도 많이 남는 스티커. 간단한 도구와 방법으로 손쉽게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식초 물린 천을 스티커 위에 1~2분 정도 붙여두었다가 제거해보세요.
▲병에 붙은 스티커는 뜨거운 물에 담가두었다가 손으로 문지르면 떼어냅니다. 병에 물을 넣고 전자렌지에 데운 후 휴지로 닦아내도 좋습니다.
▲노트나 파일 등에 붙어있는 스티커의 경우 라이터로 스티커를 가열한 후 떼어내면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헤어 드라이어로 스티커에 뜨거운 바람을 쐬어주면서 한쪽부터 천천히 떼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프레이 형태로 된 모기약이나 바퀴벌레약 등을 뿌린 후 천에 물을 묻혀 문질러 쥐도 좋습니다. 끈적끈적한 접착이 남을 경우에는 스카치 테이프로 몇 번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해주세요.
▲스티커 자국이 남아있어 지저분한 경우에는 아세톤을 이용해 닦아내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풀어봅시다 < 28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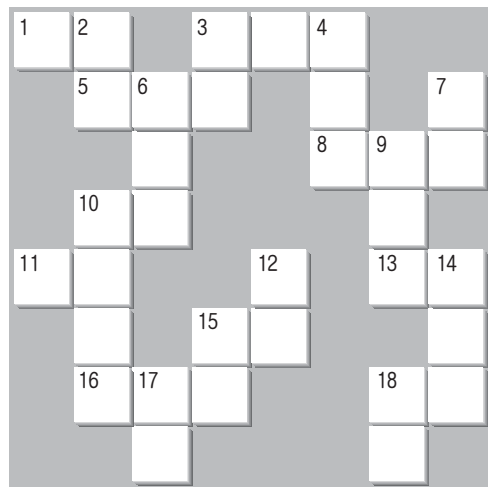
→ 가로풀이

1.약물 먹음. 이 약은 ~이 간편하다. →복약. 3.공장이나 운동 경기 등에서 머리가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쓰는 모자. 5.철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곳. 또는 길이나 철로 등에 건너다니게 된 일정한 곳. 과속하는 차 때문에 ~을 건너가기가 매우 위험하다. 8.바다나 호수 등을 둘러싸고 물을 빼내어 만든 땅. 10.씩씩하고 포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개. 사실대로 말할 ~가 생기지 않는다. 11.계속하여 부름. 또는 연이어 외침. 군중들은 그의 이불을 ~하기 시작했다. 13.일정하게 갖추어 두고 쓰는 물품. 책상과 의자 이외에는 별다른 ~이 없는 사무실 안은 쓸림했다. 15.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점포에서 고객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 주가 폭락으로 ~ 분위기는 어두웠다. 16.이마로 무엇을

세계 받아 치는 짓. 프로 레슬러 김일 선수의 주특기는 ~였다. 18.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 또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까지의 거리나 공간. ~가 벌어진다.

↓ 세로풀이

2.불일. 바쁘시다니 ~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3.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식견. 물건을 고르는 ~이 뛰어나다. 4.어머니와 아들 사이. ~ 상봉. 6.긴 뺨자의 중간을 괴어 놓고 양쪽 끝에 한 사람씩 올라서서 번갈아 뛰어 오르는 전통 놀이. 음력 정월이나 단오, 추석에 여자들이 한다. 7.언제든지 적과 싸울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고 부대를 배치해 둔 곳. ~를 구축하다. 9.조선 고종 8년(1871)에 흥선 대원군이 척양(斥洋)을 결의하며 서울과 지방 각처에서 세운 비석. '침범하는 양(洋夷)과 화친(和親)할 수 없다'는 뜻을 새겨 놓았다. 10.용과 범이 서로 싸



운다는 뜻으로 강자끼리 싸움을 이르는 말. 12.극장이나 해수욕장 등의 영업이 끝남. →개장. 14.힘든 일을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 내일은 열집 ~ 일을 간다. 15.객객이 부리는 혈기(血氣)나 용기. 술을 먹은 겁에 ~를 부렸다. 17.알에서 갸지 얼마안 되는 어린 물고기. 18.바둑에서 버릴 섹 치고 작전상 놓은 돌. ~을 이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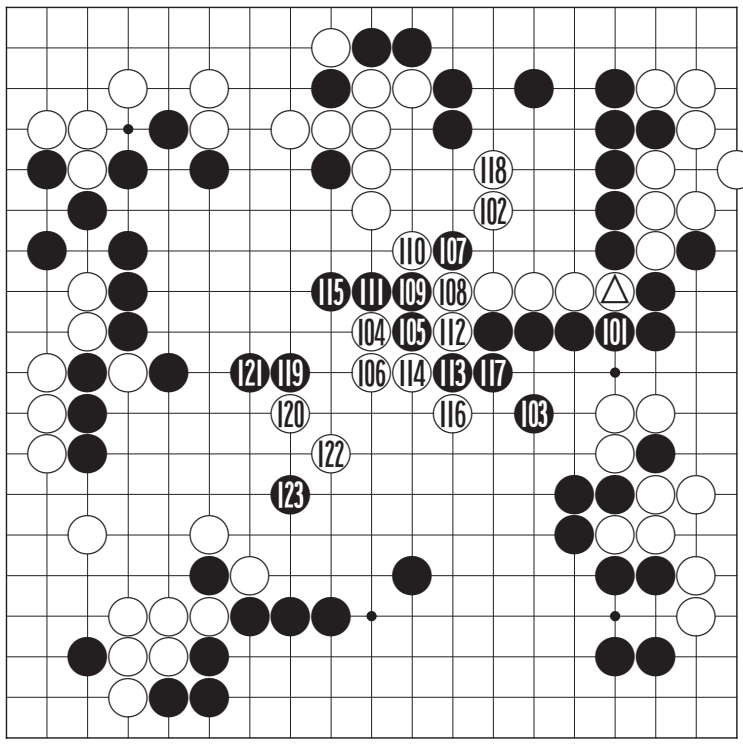


<함께 풀어봅시다 283회 정답>

- ▲지난주 정답자 조영하; 담양군 남면 김승규;광주시 북구 중흥동 행운의 숫자: 09.37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배재부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월 14일(음 12월 7일 己卯)

Horoscope section for January 14th (Year of the Rabbit). It include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birth dates and lucky/unlucky numbers. For example, the Rabbit sign (子) is born between 1939 and 1951, with a lucky number of 07 and 36.



제5회 KBC시각해몽 동통을 차단당한 집착 6보(101~123)
중고등부 결승전
白 김근홍 4단 (전자공고 1)
黑 강지수 4단 (문성중 1)
백 △로 끊은 것은 기호지세. 그러나 이것이 흑의 반발에 대한 보복에 불과할 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수였다. 상대가 약한 돌이 있어야 위력이 있을 터인데 지금은 위아래의 흑이 견고하여 의미가 없는 절단이 되고 있다. 거꾸로 백만 무거워졌다. 김근홍군은 끊은 체면을 살리려고 102로 두었으나 이 수 또한 '약수는 약수를 부른

바둑소식
목진석, 원익배 결승 진출
지난해 연간 최다 대국, 최다승 기록을 세운 목진석 9단이 제3기 원익배 결승에 올랐다. 목진석은 지난 12일 서울시 흥동 한국기원 대국실서 열린 이 대회 준결승전에서 백승식 5단을 맞아 284수 만에 백 5집반승을 거뒀다. 목진석은 초반 전투에서 좌하귀와 우하귀를 바꿔치기하면서 실리전에서 앞서 나갔고, 중반 백승식의 발 빠른 추격전을 따돌렸다.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제한시간 각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 상금은 우승 3천500만원 준우승 1천500만원이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featuring a photo of a man and child.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nd 'www.cafe.daum.net/sajoo114'.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English (I heard that John got a new job), 2. Japanese (日本語(にほんご)が話(はな)せますか.), 3. Chinese (你会包饺子吗?), 4. Korean (한자 이야기). Each column includes a topic, a question, and a list of multiple-choice answers.